

말씀의 샘

161211 주일예배 - 주님은 믿음을 밟고 오십니다(룻)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유대인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태복음의 특징은 가부장적 사회, 씨를 중시하는 사상이 있어서인지 마리아의 현몽이야기보다 요셉현몽이 보다 두드러집니다. 특히 히브리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족보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과정과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나타난 것도 '장정만' 오천명'이라고 표시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하나 한면 씩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 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밟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검다리라!"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발자국이요 징검다리였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자 자연스러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자 아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자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여인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총 다섯 명에 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이 없어서는 안될, 주님이 오시는 발자욱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명의 여인 모두 하나같이 인간적으로나 출신성분으로나 불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은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들어가자 말았어 야할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조건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어쩌면 자칫 없는 우릴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예증이라도 하듯이, 이 여인들의 삶을 밟고 은혜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할 것은 조건없이 주신 한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동참할 수 있었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한없는 **은혜와 은혜 받은 자들의 믿음**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룻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사시대 말엽, 유다지방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민을 떠난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권면하며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의리입니다.

시아머니의 현실적인 애길 듣고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좇습니다. 룻은 미련하기까지 현실보다는 책임과 의리를 선택합니다. **룻기 1: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하나님은 의리의 인격을 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성향이 현실적이며 계산적이며 기회주의적입니다.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부담이 오면 언제든지 무책임하게 현실을 선택하고 떠나버립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함께 나눠지려는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룻의 모습을 신앙안에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러한 룻의 마음, 룻의 말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룻의 바탕은 참 귀하게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문이 보아스라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는 기업무를 자 였고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이로 인해 좋게 보았고 그 이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함으로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 2: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둘째는 순종입니다.

룻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순종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서 있으라고 말할 때,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룻기 3:1~9에서부터 나오미는 룻에게 무리한 조언을 합니다. **룻 3: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 내가 함께 하던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인간적으로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40대 중반을 훌쩍 넘은 중년이였을 것이고 룻은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였을텐데 말입니다. 나이만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도 생각해야하고 만약 룻이 이불을 들고 한 밤중에 보아스 옆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불쾌해하며 룻을 나무랄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룻 3: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다, 명령대로 다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룻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 12월 11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2. 18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1:12~16 / 누가복음 1:26~38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주님은 믿음을 밟고 오십니다.(마리아)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샘과 영성의 샘을 함께 가꾸는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